



❶ 국제캠 네오르네상스 정문에 설치된 포토부스 주위에 학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 있다. ❷ 총장네켓을 찍고 난 학생들의 인증샷. ❸ 총장네켓 프레임 사진을 촬영 중인 김진상 총장. ❹ 우리학교 마스코트 '쿠옹이' 인형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김진상 총장. ❺ 총장네켓 사진 프레임.
(사진1,3,4=국제캠 총학 제공, 사진2=조병연 기자, 사진5=국제캠 총학 SNS 캡처)

‘탈권위’ 소통 ‘총장네켓’… 학생들도 호응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정문 앞에 설치된 한 포토부스에서 오재빈(환경조경디자인학 2022) 씨가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나왔다. 같은 부스가 학생회관 앞에도 설치돼 있었다. 학생 너댓 명이 함께 부스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나온다. 학생들은 부스에서 찍고 출력한 사진을 다 같이 보며 웃음꽃을 피운다.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학생들이 즐거워했을까. 보여준 사진 속에는 지난달 새로 부임한 김진상 총장의 모습도 있었다. 마치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총장과 학생들이 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찍은 사진을 곧바로 SNS에 공유했다.

입학 주간 맞아 진행된 ‘총장네켓’ 양 캠퍼스에서 학생들 인기 끌어

지난 한 주 동안 김진상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 ‘총장네켓’이 양 캠퍼스(양캠)에서 운영돼 인기를 끌었다. 국제캠 정문과 학생회관 앞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 돌계단 앞에서 운영됐다.

총장네켓은 국제캠 총학생회가 3월 신입생 입학 주간에 맞이해 기획했다. 포토부스에 들어가 사진 프레임 중 총장의 모습이 담긴 프레임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으면, 총장과 한 공간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행사 기간 내내 청운관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캠에 설치된 부스에도 학생들의 발걸음이 내내 이어졌다. 양캠 총학에 따르면, 이번 포토부스 행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포토부스 행사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총장네켓 프레임 속 네 개의 사진 안에서 김 총장은 딱딱한 모습이 아닌, 다소 감쪽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컷에서 김 총장은 양손으로 고양이 손짓을 하고 있는데, 함께 띄워진 ‘야옹 야옹 쿠옹~!’ 자막은 김 총장을 더욱 친근해 보이게 만든다. 총장실은 이와 관련해 “총장님께서 총학생회와 함께 매우 즐겁게 촬영에 임하셨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여러 포즈를 취하는 김

총장의 ‘엠지(MZ)스러움’에 친근함을 느껴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입을 모았다. 오 씨는 “총장님이 아이들처럼 포즈를 취한 모습이 뭔가 더 엠지스러웠다”라며 “재밌을 것 같아서 찍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회관에서 총장네켓을 찍은 김주안(우주과학 2024) 씨도 “총장님이 나이가 있으신데도 엠지스럽게 참여하셔서 좋았다”며 행사에 만족감을 표했다.

총장·교수의 ‘탈권위’ 소통 행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일반화돼야’

이 같은 대학 총장의 학생 눈높이에 맞춘 소통 행보는 현재 대학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가천대학교(가천대)의 이길여 총장은 9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작년 가천대 축제 무대에 등장해 학생들 앞에서 ‘말춤’을 선보였다. 가천대에 재학 중인 박세윤 씨는 이 총장에 대해 “평소에 학생들과 소통을 빈번하게 하시는 편”이라며, “총장님의 적극적인 소통 능력 덕분에 총장님을 뵈는 적이 없는 학생조차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들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학내 교수들로 이뤄진 ‘남성교수총장단’이 매년 입학식 때 신입생 앞에서 유명 아이돌 노래를 개사해 불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한다. 또한 마산대학교 입학처 SNS 계정은 교직원과 교수들이 각종 밈을 패러디하는 모습을 공개해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고 있다.

국제캠에서 ‘인간행동의이해:심리학’을 가르치는 김시현(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러한 소통방식에 대해 “권위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이 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디어학과 박종민 교수는 ‘탈권위’를 정의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탈권위’라는 것은 제도, 지위의 형식적인 권위를 굳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소통 상황에서는 버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수평적 관계 문화를 증가하고 조직문화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하

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대학 사회에서 이뤄지는 수평적 관계에 대해 “적극 권장되고 또 매우 자연스러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 더욱 더 일반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가 탈권위 유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우리학교의 총장네켓 사례도 학생들 인식에 긍정적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열풍에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으면 친밀감을 느낀다”며 학생들의 유희 문화에 참여한 총장의 행보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린(우주과학 2024) 씨는 총장네켓을 찍고 나서 “입학식 때 총장님의 무게 있는 모습을 보다가 총장네켓의 총장님을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캠 총학생회 모두 이번 행사가 학교와 학생 간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캠 총학생회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총장님과 인사를 나누며 간접적으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유의미한 행사”라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생회도 “학생과 학교 간의 교류, 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짚었다.